

AIDS 이야기

■AIDS의 증상과 경과

발열, 발한, 체중감소, 정신적 무력감 등을 느끼게 됩니다.

AIDS병원체에 감염되면 그중20-30%는 3개월~5년 사이에 발열, 발한, 피로감, 탈력(脫力), 설사, 체중감소, 빈혈, 심한 두통, 정신적 무력감 등을 느끼게 되며 이와 더불어 임파절에 악성종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물론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AIDS라고 진단을 내릴 수는 없으나 4주이상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병이 심해지면 임파선이 비대해지고 피부암의 일종인 카포시 육종이 나타나고 폐렴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물론 AIDS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음

니다. 일단 감염되면 3개월에서 5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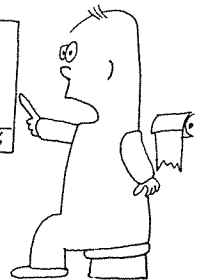
■AIDS의 진단

1 차적으로 면역 효소 측정 검사를 반복 실시합니다.

◎ 혈액검사

AIDS 진단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병사						
발열						
두통						
피로						
주	1	2	3	4	5	6



4 주 이상 증상이 계속되면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AIDS 병원체에 감염되면 보통 8주 정도 지난후 항체가 만들어 집니다. 1차적으로 집단검사방법으로 면역효소측정(ELISA)검사를 반복 실시해 항체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2차적으로 확인검사를 합니다.

이 두가지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을 항체양성자라고 합니다.

진단은 우리나라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AIDS예방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대책입니다.

AIDS 병원체가 발견되고 환자들이 사망하기 시작한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AIDS의 치료를 위한 약이나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은 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DS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곧 최선의 예방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페스트라고까지 표현될 만큼 그 심각성이 더해가는 AIDS 감염예방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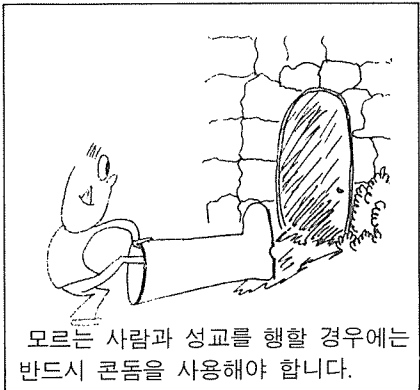
1. AIDS환자나 AIDS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 AIDS항체양성인 사람들과의 성적 접촉을 피한다.
2. 문란한 성생활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모르는 사람과 부득이 성교를 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한다.

4. 주사를 맞을 때에는 반드시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한다.

5. 마약사용자와의 성교를 피한다.

6. AIDS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이나 마약사용자와 성교대상이 되는 여자는 임신할 경우 신생아에게 감염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임신전에 AIDS 바이러스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임신이 되었다더라도 반드시 AIDS 병원체 항체검사를 해보도록 한다.



모르는 사람과 성교를 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AIDS 검사결과 양성인 사람은

1.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담당의사와 상담을 한다.

2. 혈액이나 정액 및 장기의 제공을 삼가한다.

3. 타인과의 성행위를 통한 체액의 교환이 없도록 한다.

4. 칫솔, 면도칼 등 혈액의 오염이 가능한 물건들을 함께 쓰지 않도록 한다.

5. 임신을 미루거나 피한다.